

데스크 시각



홍행기
정치부장 겸집부국장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돌면서 최종 대선후보의 윤곽도 서서히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이를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 민들은 이제 '호남경선 이후'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하다. 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야당을 제치고 확실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선 준비와 함께, 어느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든 "네거티브 선거전 등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원팀 정신' 재가동이 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결선투표 쉽지 않은 상황

민주당은 지난 9월 4일 대전·충남 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10일 서울 경선에 이르기까지 11개 지역 순회 경선과 세 차례의 슈퍼위크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 및 전북을 대상으로 한 호남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벌써 절반이 넘는 6개 지역 경선이 끝난 상태다. 슈퍼위크 역시 지난 12일 1차가 치러진 데 이어 내달 3일과 10일 한 차례씩 두 번의 슈퍼위크만 남아 있다.

기고



문진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갑

'하늘의 도움으로 전하를 얻는다'를 뜻하는 주역의 화천대유가 대한민국을 감태했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는 충격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낳고 있다. 여기에 하나둘씩 드러나는 정치·경제·사회 법 기득권의 비호와 연루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메가투입 대선 이슈라는 점 때문인지 정치권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유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국정조사, 특검 등의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지사 측근을 중심으로 관련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특히 의혹을 연일 제기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만이 할 수 있었던 모범적 행정 사례 중 하나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이 지사에 대한 야권과 보수 언론의 의혹 제기엔 편승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지

은펜칼럼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국제채식인연맹(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은 1908년 독일에서 창립되었다. 연맹은 채식주의자를 여덟 부류로 나눈다. 그중 느슨한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은 가끔 육식을 하는 준(準)채식인이다. 반면에 프루테리언(Fruitarian)은 과일과 곡식 외에는 식물의 뿌리나 잎도 먹지 않는 극단적 채식주의자다.

비건(Vegan)은 채소(vegetable)에 어원을 둔 완전 채식주의로 육류, 생선은 물론이고 알, 꿀, 유제품 등 동물에게서 얻은 식품 일체를 거부한다. '비건'이라는 용어는 1944년 영국에서 '비건 뉴스'(The Vegan News)를 창간한 도널드 왓슨이 Vegetarian의 앞뒤 글자를 결합해 쓰기 시작했다. 비건을 지지하는 주의 주장으로서 비거니즘(Veganism)은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비건 패션에서는 모피나 가죽, 울 등 동물성 소재뿐 아니라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크도 배격한다. 비건 패션의 대표적 인물로 자동차 왕, 헨리 포드(Henry

호남 경선 이후

현재 1차 슈퍼위크까지 진행된 경선 결과로만 보면, 승부는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많이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5일과 26일 마무리된 '호남 지역 경선'까지 이 지사는 누적 득표수 34만1858표로 과반이 넘는 53.01%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대세론'을 굳건히 이어 가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22만 2353표를 얻어 34.48%의 득표율로 1위인 이 지사에 11만9505표 차이로 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회 경선이 진행될 제주, 부산·울산·경남, 인천, 경기, 서울 지역이 대체로 이전 대표보다는 이 지사가 강세를 보여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전 대표가 이 지사의 '대세론'을 극복하기엔 현실적으로 다소 버거워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결선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2위 후보와 함께 나머지 후보들도 최대한 득표수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데다 3위인 추미애 후보와 4위인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도 10.60%와 1.23%를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지사가 '과반 득표율'을 유지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종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는 결국 관건은 민주당이 선출한 본선 후보가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지' 묻는 질

문에 응답자의 55.6%가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선택한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38.5%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민주당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본선 대비 다시 '원팀 정신'으로

호남 지역민들도 바로 이 지점을 염려해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지금처럼 순회 경선이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후보들 간, 지지자들 간 불편한 감정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게 파인다면 야당과의 본선 대결에서 '원팀 구성'에 실패,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하고 있는 '대장동 논란'처럼 여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거세질 경우, 모든 후보와 지지자들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쏟아지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제 이를 뒤면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인천 그리고 2차 슈퍼위크가 잇따라 진행된다. 특히 이번 2차 슈퍼위크는 50만 명 규모의 선거인단이 각기 한 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본선으로 직행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이제는 시선을 본선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질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정도뿐이다. 민주당 내 모든 후보와 모든 지지자들의 원팀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redplane@kwangju.co.kr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사는 1원이라도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 대선 후보와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야권과 당내의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실제적 진실은 무엇일까? 먼저, 누가 왜 LH의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꿔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LH의 공영개발로 확정된 대장동 사업이 2010년 민간개발로 바뀐 배경을 살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LH를 직접 압박한 당시 새누리당 신영수 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신영수 전 의원이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법 위반 고발 재판 자료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자들의 개발 이익 독점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을 성남시의 공영개발로 바꾸고, 이를 통해 그들로부터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원시켰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본 자들은 누구일까?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을 주목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힘 인사들과 지인들이 관련자로 언론에 소환되고 있다. 화천대유에는 조선일보 보도와 다르게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아닌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의 아들이 1호 사원으로, 원유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고문으로 근무했다.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의 영향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전순

일 전 대표관도 고문으로 근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변호인 이재경 변호사도 2015년부터 7년간이나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배우자, 김정 전 친박연대 의원과 배우자, 이완구 전 총리의 차남이 대장동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 광상도 의원은 아들이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일한 일반 사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약 6년간 근무 후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서툰한 살의 일반 사원인 광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한민국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4위인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보다 5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쯤 되면 화천대유 게이트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대장동 투기 의혹, 화천대유 의혹을 정치 쟁점화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함이라면 옳은 말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하면서 할수록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니 딱히 탈출구도 없어 보인다. 만약 국민의힘이 실제적 진실 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광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악몽과 같은 국민의힘 게이트의 탈출구는 바로 거기에 있다.

비건(Vegan)과 비거니즘(Veganism)

Ford, 1863-1947)를 꼽는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CEO, 당대의 패션 스타로도 알려졌는데 콩 단백질을 가공한 섬유로 만든 양복을 입고 다녔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콩 섬유로 만든 침구, 손수건, 유아용 제품 등이 판매된다.

국제채식인연맹은 기아 해결, 환경 보호, 생명 존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채식을 권한다. 연간 170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인간의 식재료로 쓰인다고 추정한다. 콩이나 옥수수 등을 가축의 사료로 쓰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고기를 얻는 데 이런 곡물은 빈곤층의 먹거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질적 차이가 그 추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축은 직접 다량의 탄소 화합물을 배출하고 방목은 초원과 산림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해양 다음으로 중요한 탄소 저장고이다. 따라서 채식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과도한 육식은 채식에 비해 미반, 혈관 질환, 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인병의 주범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성분이다.

생명 존중은 인간에게 중요한 규범이며 윤리적 가치이다. 동물애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살용 가축이나 가공류 등의 사육 현실은 심각한 동물 학대 수준이다.

2016년 우리나라 최초의 맨부커상(The Man

Booker Prize) 수상작인 'The Vegetarian'(채식주의자)은 한강 작가의 연작소설을 드보라 스미스가 영어로 번역하여 영국에서 출판하였다. 맨부커상은 세계 3대 문학상에 드는 권위 있는 상이다. 소설은 수상 후 단 3일 만에 32만 부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수상전 총 판매량의 10배가 넘는다.

주인공 영혜는 어느 날 사별한 고깃당어리들을 끝없이 헤치며 출구를 향해 달리고 이빨에 찢히던 날고기의 생생한 감촉 등 끔찍한 꿈을 꾸 후 채식주의자가 된다.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자해 시도, 이혼으로 이어지는 가정 파탄, 정신병동에서 그녀의 물구나무서기는 천지가 뒤바뀌는 경험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 관계, 삶과 인격의 파괴를 상징한다.

한강의 소설을 읽었을 직한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질문한다. 한국에도 비건이 있는가? 한국에서 비건이 생존할 수 있는가? 소설은 상당 부분 사회상을 반영하기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다.

장상록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혐오하는 사회'는 77편 칼럼 중 한 편의 제목이다. 보신탕을 못 먹던 그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으로부터 '보신탕도 못 먹는 사내'라는 질타 섞인 면박을 당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보신탕뿐 아니라 채식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고 그에 따라 타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다양한 인권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현 시대에 채식주의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社說

공공개발 신앙파크 공유화 취지 잘 살려야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주 신앙파크호텔 공공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상비 문제가 타결됐다. 광주시는 최근 신앙파크호텔 측과 공공개발 사업에 따른 관련 토지·건물·시설 등의 보상액을 369억 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평균 419억 원으로 나왔지만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가격을 조율한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고 한다. 시는 호텔 측과 계약동의서를 작성했고 빠른 시일 내에 투자 심사 등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앙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정·학 협의회는 다음 달 중 사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20차례 넘게 회의를 진행했는데, 개발 방식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호텔 시설을 재활용한 유스호텔이나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랜드마크 건립을, 동구는 문화에

술 체험형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한 어린이 전용 공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를 상징하고 도심에 조망할 수 있는 '시티 타워'를 건립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에선 자연 생태계를 원상 복구하거나 공원을 조성해 민간이 주도하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방식으로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학습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 연립주택 건립이 추진되던 신앙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환경 훼손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공공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시민들이 나서서 난개발 방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활용 방안 역시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대원칙 아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학 살림 빠듯한데 '억' 소리 나는 총장 연봉

사립대 총장 중 최고 연봉은 무려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는 1억6000여만 원이었으며, 사립대 학교법인 이사장의 평균 보수는 8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학 살림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일부 대학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장 보수를 공개한 대학 중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초당대 총장이 3억4600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대 총장(2억7600만 원), 차의과대학 총장(2억5000만 원), 호남대 총장(2억4000만 원), 명지대 총장(2억2279만 원), 남부대 총장(2억147만 원) 등이 2억 원 이상 보수를 받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운영석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총장 보수 지급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한 사립대 총장 평균 보수액은 1억5734만 원이었다. 자

료를 제외한 학교법인 이사장 중에는 단국대 법인 이사장이 2억6천578만 원으로 최고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호남대 법인 이사장(1억9200만 원),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1억8000만 원)순으로 나왔다.

이처럼 사립대 총장이 이사장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등록금 반환 여론도 거세다. 2020년 1학기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생 84.6%가 '등록금 50%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고 2020년 2학기 때도 80.2%가 등록금 절반 이상 반환을 지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학들도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높여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둔 가운데 여야의 경선 레이스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 여론조사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현재까지 2개월간 등록된 관련 여론조사만 120여 건이나 된다.

하지만 매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해 이를 보는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 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순위가 조사 업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제각각인 것은 여론조사 방법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론조사에는 보통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응답(ARS) 전화 조사가 있다. 전화 면접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보고, ARS는 질문 내용을 녹음해 기계음으로 물어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ARS 전화 조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이를 놓고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ARS는 보수 편향, 전화 면접은 진보 편

향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없다. 다만 ARS는 기계음이라는 점에서 쉽게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낼 수 있고, 전화 면접은 면접원의 통화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자동응답 조사도 100% 무선전화로 하느냐 아니냐 유선전화 여부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통상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유선전화 면접 비중이 높을수록 보수층 여론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유선전화에 응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는 평면적인 수치가 아니라 '추이와 흐름'을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도한 밴드웨건(편승) 효과를 견인하며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흐름이 중요한 만큼 대선 판세를 읽기 위한 여론화 조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이를 놓고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ARS는 보수 편향, 전화 면접은 진보 편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지율 순위가 조사 업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제각각인 것은 여론조사 방법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론조사에는 보통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응답(ARS) 전화 조사가 있다. 전화 면접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보고, ARS는 질문 내용을 녹음해 기계음으로 물어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ARS 전화 조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이를 놓고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ARS는 보수 편향, 전화 면접은 진보 편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지율 순위가 조사 업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제각각인 것은 여론조사 방법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